"공무원 옭아매는 광양시의회 너무하네"

툭하면 출석 요구… 업무 폭증에 시정 차질

일부 중복질의·과도한 자료요구 자질 의심

광양시의회가 매년 회기 일정을 늘리면서 시청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 의원의 경우 중복 질의나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회, 임시회 등을 포함해 모두 103일의 회기 일정을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민선 6기 광양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11년 98일, 지난해 100일에서 3년 연속 회기 일정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에 방침에 대해 광양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간부 직원은 물론 일선 현장에 나가야할 담당직원까지 의회 출석이 잦아지면서 업무 공백은 물론 시민 대민 서비스 차질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광양시 직원의 근무 일수가 250여 일임을 감안하면 시의회 회기는 103일은 전체 근무일의 절반에 육박한 수치다. 간부 직원들의 경우 의원 개별적인 요청이나 위원회별 일정 등에 수시로 불려다니고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까지 챙겨야 하는 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의 경우 각 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을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중복 질의하는 등 자질논란도 일고 있다.

시정질문에 시장 출석 및 답변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투자 유치, 대민 봉사 등 대외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담당 간부직원의 답변으로 가능한 질의까지 모두 직접 나서는 등 시의회에 얽매이면서 정작 선결해야할 사안들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시청 한 간부 직원은 "시의회의 지나친 시장 출석 요청과 긴 회기 일정, 일부 의원들의 교조적 자세 등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정 발전과 대민서비스를 위해 건전한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를 우선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최근 민원인들이 시청보다는 시의회로 몰려가고 있다"며 "시의회가 시청에 압박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지자체와 의회 간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올해 전남 22개 시군의회 가운데 신안군이 107일로 가장 길고, 다음이 광양시(103일)이며, 함평군이 78일, 나주시 84일 등으로 대부분 100일 미만이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무르익는 순천만정원박람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팸투어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NS(소셜네트워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는 등 박람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사진〉

순천시는 18일 "박람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이 지난 16일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주제영상관에서,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칸첸중가 원정대 발대식이 같은 날 이성원 대장 등 산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각각 열렸다"고 밝혔다.

SNS 서포터스는 앞으로 정원박람회의 눈과 귀가 되어 박람회장 소식을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내외에 신속하게 전달하게 된다.

조직위는 이 같은 홍보활동과는 별개로 순천시와 자매·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전국 지자체 및 호남 향우회를 초청해 18일부터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팸투어에는 서울시와 오산시 관계자 60여 명, 경기·강원 호남향우회 임원단 80여명이 참가해 순천의 주요 관광지와 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21일부터는 중국 관람객 유치 전문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 중국 관람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갖는다.

한편 남해안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이하 남중권협의회)'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입장권 1000만원 어치를 구매하기로 의결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소상공인 지원 협력

구례-전남신보재단

구례군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술력 담보능력 향상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18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양 기관 협약 체결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기술력이 우수하면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군은 영세한 기업들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구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신보는 지난해 구례군의 123개 업체를 대상으로 18억원의 보증실적을 올려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도시민 500가구 유치 구례군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3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총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군은 오는 2015년까지 도시민 500가구를 유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귀농가구들로 구성된 오미리 행복마을 전경. 〈구례군 제공〉

고흥, 군민과 함께 10년 로드맵 수립

고흥군이 군민 행복 실현과 '우주항공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종합발전 10개년 로드맵 수립에 들어갔다.

18일 군에 따르면 최근 나로호 성공 발사 이후 관광수요 급증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농수산업은 물론 복지, 관광산업, 우주항공, 지역개발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와 정책개발팀, 직렬별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해피드림 TF팀'을 가동하는 한편 일반 군민들도 정책 구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연말까지 다문화가족 경제 교육

보성다문화지원센터

보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중앙경제교육센터 강사를 초빙해 올 연말까지 다문화가족 경제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모두 30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0명씩 3개조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알뜰하게 살림꾸리기, 저축의 필요성 등 경제 분야에 중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또 가계부를 직접 작성해 보고 저축의 의미를 이해해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목을 넓히고 다문화 가족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전북

군산 '탄소포인트제' 확대 실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홍보

군산시는 18일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 및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양을 절감하면 절감한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7000여 세대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각종 교육 및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에서 교육 받은 그린리더(녹색활동가) 10여 명이 연중 개개인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가정 에너지 진단' 및 '컴퓨터 절전프로그램 그린터치 설치' 등을 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1만1000여 세대가 참여해 지난해에만 1억50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참여자들의 개인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 바 있다"며 "모쪼록 모든 시민이 적극 참여해 앞서가는 녹색도시를 만드는 녹색생활의 실천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시간당 전기 1kw를 절약하면 424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게 되고, 수도는 1㎥당 332g, 도시가스는 1㎥당 2240g을 감축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찾아가는 귀농학교' 호응 순창군이 전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 15일부터 3일간 도시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수도권 귀농학교'가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귀농학교에서는 생태 집 짓기와 단열, 집을 수리하는 요령은 물론 로켓스토브를 직접 제작하는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순창군의 권장작목 30여 품목이 식재돼 있는 소득개발시험포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참가자 중 5명이 순창 귀농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적극 추진

남원시는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시에서 파견된 도우미가 농사를 대신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도우미의 임금의 90%를 지원해주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5ha 미만의 경작자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우미를 1일 8시간 기준 60일 동안 영농 대행 및 가사일 일부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일 기준 4만원의 90%인 3만6000원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호적등본상의 배우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 벼 키다리병 근절 대책 마련

순창군이 지난해 벼농사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벼 키다리병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15일 관내 벼농사 독농가 12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전문 강사를 초빙해 벼 키다리병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가졌다. 또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키다리병 근절을 추진중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송경석 지도사는 "종자소독의 시작은 볍씨 소금물 가리기부터"라면서 "볍씨 소금물 가리기만 해줘도 키다리병 발생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부안 격포지구 복구사업 부실 논란

배수갑문·배수로 정비 등 기본계획과 달라

자연석 쌓기 제대로 안돼 20~30cm 틈 생겨

부안군이 4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격포지구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 하천기본계획과 달리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청 감사실은 18일 "지난해 43억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수갑문 1곳 및 펌프시설 1개 설치, 배수로 정비 400m 등의 주내용으로 하는 격포지구 개선복구사업에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 사업은 하천기본계획과 달리 하천공사 부지가 하천구역에 맞지 않았다.

제방을 쌓거나 보완하는 계획은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여유공간도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

또 배수갑문을 경간장(지주나 교각 사이의 서로 마주보는 면의 거리)이 미달하도록 설계하고, 기존 목교의 경우 하천시설기준에 부적합해 철거해야 하지만 이를 존치함으로써 재해 가능성도 높였다고 전북도 감사실은 지적했다.

자연석 쌓기도 조잡했으며, 간격을 제대로 안 채워 25~30cm의 틈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으로도 불안정했다.

박모(43)씨는 "공사 시작부터 과대한 토지보상 문제에다 입찰 예산 낭비 가능성을 군에 지적을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전북도 3월 정기 감사에서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며 안전시공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안군은 전북도 감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17개 시설이 지난 2011년 기준 연간 17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공유재산 관리비용이 연간 약 100억원에 이르는 등 무계획적인 신규사업 추진 등도 지적받았다.

부안 자연 에너지 파크 등 4가지 대규모 신규사업을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에 나섰으나 정작 민간자본 1175억원과 자체재원 530억원 확보 대책도 없는 등 사업 추진 실적도 부실하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단신

고창, 5번째 농촌건강 장수문화관 준공

고창군은 18일 "지난 15일 성내면 산림리 낙산마을에는 이강수 군수,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등과 마을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에서 5번째로 농촌건강 장수문화관과 마을회관 신축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장수문화관과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여가활용 교육과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 · 두부, 천연세제를 만드는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강수 군수는 "건강한 농촌마을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주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생활 영위의 기반이 돼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 활력 있는 마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남원,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 시행

남원시는 18일 "이달부터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을 3일~7일 이내 처리하기 위해 처리기한이 도래한 민원을 담당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시는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286종) 중 단축처리기한이 2일 전인 경우는 그린카드, 단축처리기한이 1일 경과한 경우는 엘로우카드, 법정처리기한이 1일 경과한 경우는 레드카드 예고문을 내부 전산망으로 직원들에게 보내게 된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3회 이상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공무원은 감사실에 통보해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 1호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탄생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8일 전북 최초 '부부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전북 1호 부부 아너소사이어티의 주인공은 김홍식(58)·유경희(50)부부.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인 김씨는 이날 사랑의열매에 아내 유씨와 함께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김씨는 이전부터 "기업의 이익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아버지 고 김광수 회장의 뜻에 따라 2002년부터 명절에 사랑의 쌀 나눔을 실천해 왔다. 또 전북도시가스 내 동호회별 6개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각각 사회복지시설과 결연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민창안대회 39개팀 선발

정읍시는 2013년 정읍시민창안대회의 뿌리단계와 줄기단계로 활동할 대상자 39개 팀을 선발했다. 지난 15일 심사를 통해 선발된 팀은 뿌리단계 32개팀(마을공동체 17개팀, 창업공동체 15개팀), 줄기단계 7개팀(마을공동체 3개팀, 창업공동체 4개팀)이다.

시는 "공동체성, 투자계획의 적절성, 지역자원 활용 여부, 구성원의 참여의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익분야와 소득과 일자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발팀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운영되는 시민창안학교 교육을 거쳐 단계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